전세계 자연재해 분석을 통한 2019 재보험 인수정책 결정

-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정용진 -

목 차

I. 서론

II. 본론

1. 2017 자연재해 분석

2. 2018 재보험특약 갱신 동향

III. 결론 (2019 재보험전략)

I. 서 론

2017년은 1880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전세계 해수 및 대륙 연평균 기온이 높았던 한 해였다. 이로써 전세계 해수 및 대륙 연평균 기온은 40년 연속으로 세계 평균 기온을 상회하는 추세를 이어가게 되었으며, 지구 온난화 및 북극 해빙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형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7년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및 보험손해액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3,530억 달러의 경제손해액, 1,340억 달러의 보험손해액을 기록하면서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자연재해 손해액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이는 2000년부터 2016년 동안의 평균 경제손해액 대비 93%, 동 기간 평균 보험손해액 대비 163% 증가한 기록이다.
2017년 세계 자연재해 손해액이 증가한 이유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손해가 급증한 데에 기인한다. 이 중 허리케인 하비(Harvey), 어마(Irma), 마리아(Maria)에 의해 발생한 경제손해액은 2,220억 달러, 보험손해액은 800억 달러로 전체 경제손해액의 63%, 보험손해액의 60%를 차지하였다.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보험시장의 가격구조도 변하고 있다. 지난 십여년간 재보험시장은 신규 자본의 유입, 안정된 이자율, 담보력 증가로 꾸준히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의 자연재해로 시장이 소프트마켓에서 하드마켓으로 전환될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재보험시장 가격 지표중에 하나인 Event XOL의 가격이 2018년 초 소폭 반등하였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원보험사들은 보유에 대한 Protection Cover 구입에 부담을 가지게 되어 비비례재보험에서 비례재보험으로 재보험 방법을 변경하거나 아예 인수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으며 재보험사는 자신이 갖고있는 담보력을 비비례시장에 우선 투입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소프트마켓이 지속된다면 원보험사는 현재와 같은 인수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유에 대한 Protection Cover 구입에 부담이 없어져 재보험을 통한 위험전가에 인색하게 되어 재보험시장은 현재보다 축소될 것이다.

이에 2017년 자연재해를 분석하여 재보험시장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보고 향후 재보험시장의 가격흐름을 예측하여 2019년 보험주체(원보험사 및 재보험사)들이 어떻게 재보험 운영을 해야 하는지 논하고자 한다

II. 본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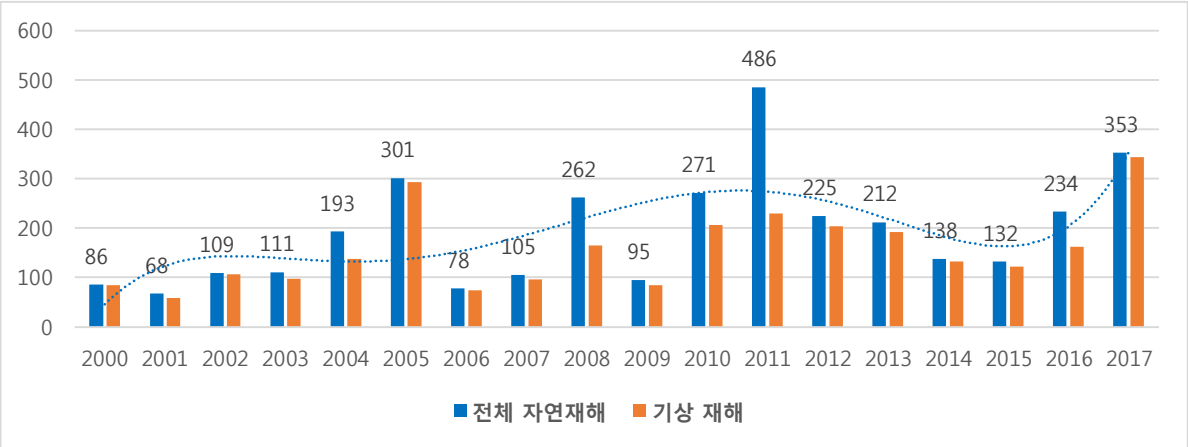
1. 2017 년 전세계 자연재해 [주1] 분석

1) 경제손해액 분석

2017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손해액은 2011년에 기록한 4,86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손해로 기록 되었으며, 허리케인 등 기상 재해로 인한 경제손해액만 산정할 경우 3,440억 달러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손해액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0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한 평균 경제손해액(1,830억 달러) 대비 93% 상회하는 수치이며, 동 기간 발생한 순수 기상 재해 평균 경제손해액 대비 5.4% 증가한 수치이다.

< 전세계 자연재해 경제손해액 추세 (2000-2017) >[주2]

(단위 : 10억 달러)



2017년에 발생한 자연재해 중 경제손해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손해액을 기록한 자연재해는 허리케인 하비(약 1,000억 달러), 마리아(약 650억 달러), 어마(약 55억 달러) 순이었으며,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州 산불(130억 달러), 중국 홍수(75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주1) 자연재해 기준 : ① 경제손해액 5천만 달러 이상 ② 보험손해액 ③ 사망자 10명 이상 ④ 부상자50명 이상 ⑤ 건물 2,000채 파손 중 한 가지 이상 조건 부합 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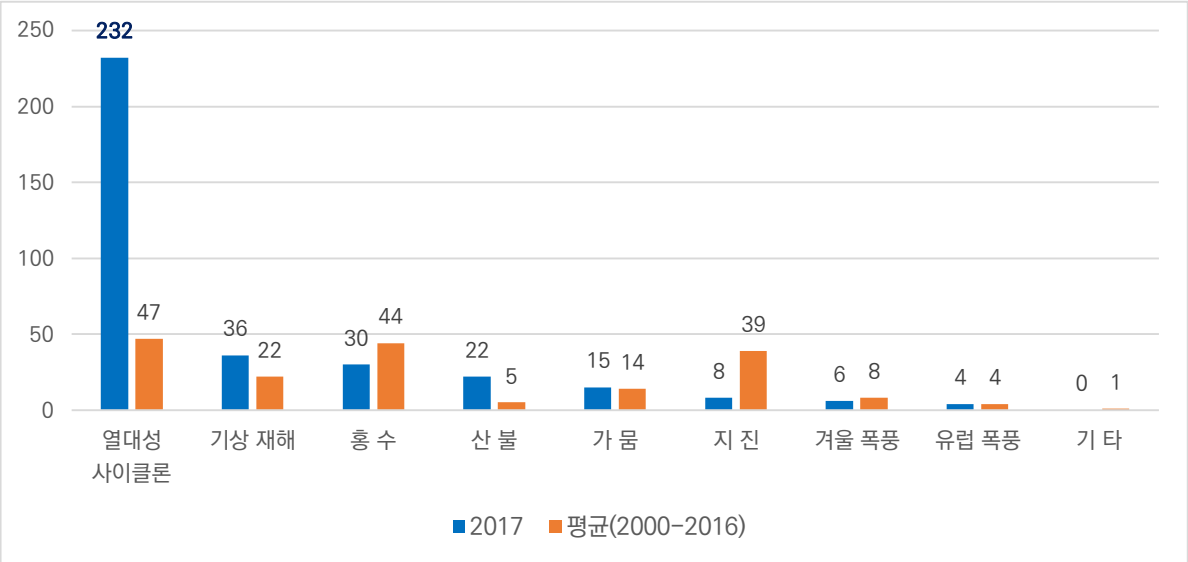
주2) 2018. 3월 Aon-Benfield Report, Korean Re 자연재해 분석 DB

< 2017년 주요 자연재해 경제손해액 > [주3)] (단위 : 10억 달러)

발생일	재해 유형	발생 장소	경제손해액	보험손해액
8.25 – 9.2	허리케인 하비	미 국	약 100	약 30
9.18-22	허리케인 마리아	캐리비안	약 65	약 27
9.4-12	허리케인 어마	미주, 캐리비안	약 55	약 23
10월	산 불	미 국	13	11
6-8월	홍 수	중 국	7.5	0.3
6-11월	가 뭄	남유럽	6.6	0.7
9.19	지 진	멕시코	4.5	1
7월	홍 수	중 국	4.5	0.13
8.23-25	태풍 하토	중 국	3.5	0.25
5.8-11	기상 재해	미 국	3.4	2.6
기 타			90	38
합 계			353	134

이처럼 2017년 세계 자연재해의 경제손해액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대서양에서 발생한 하비, 어마, 마리아 등 허리케인 손해(2,220억 달러)와 미국 캘리포니아州에서 발생한 산불(130억 달러)에 따른 손해액 증가에 기인한다. 지난해 허리케인을 포함한 기상 재해에 따른 경제손해액은 3,440억 달러 기록하였다. 2000년 이후 분기별 최대 경제손해액 기준으로 2017년 3분기는 2,610억 달러로 2000년 이후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1년 태국 홍수 및 일본 대지진에 기인하여 3,070억 달러의 경제손해액을 기록한 2011년 1분기의 뒤를 잇는 손해액 규모이다. 직전까지 2011년 1분기에 이어 높은 경제손해액을 차지했던 해는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 리타(Rita), 데니스(Dennis)로 인해 2,180억 달러의 경제손해액이 발생한 2015년 3분기였다.

< 2017년 유형별 자연재해 경제손해액 > (단위 :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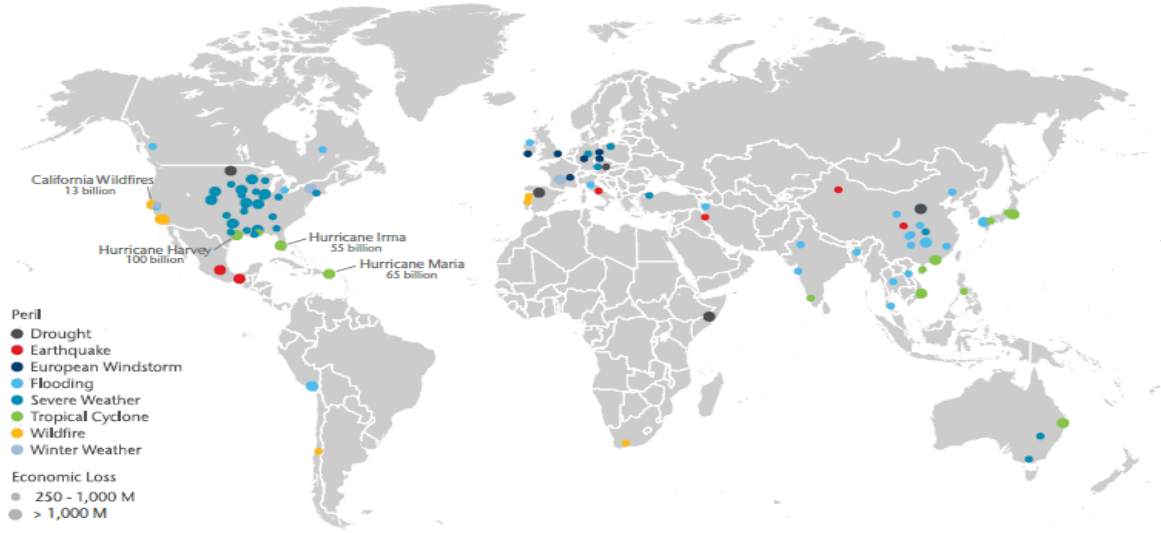


주3) 2018. 3월 Aon-Benfield Report, Korean Re 자연재해 분석 DB

2012년 이후 열대성 사이클론에 의한 경제손해액 비중이 가장 높은 해로 기록되었다. 2017년 발생한 열대성 사이클론에 따른 경제손해액은 2,320억 달러로 전체 경제손해액의 약 66%의 비중을 기록하였고, 대부분이 대서양 바신(Basin) 부근에 상륙한 특징을 보였다. 열대성 사이클론에 이어 높은 경제손해액 비중을 나타낸 재해 유형은 기상 재해와 홍수 및 산불이었다. 특히 홍수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 2017년 전세계 자연재해 경제손해액 발생 현황 >

(단위 :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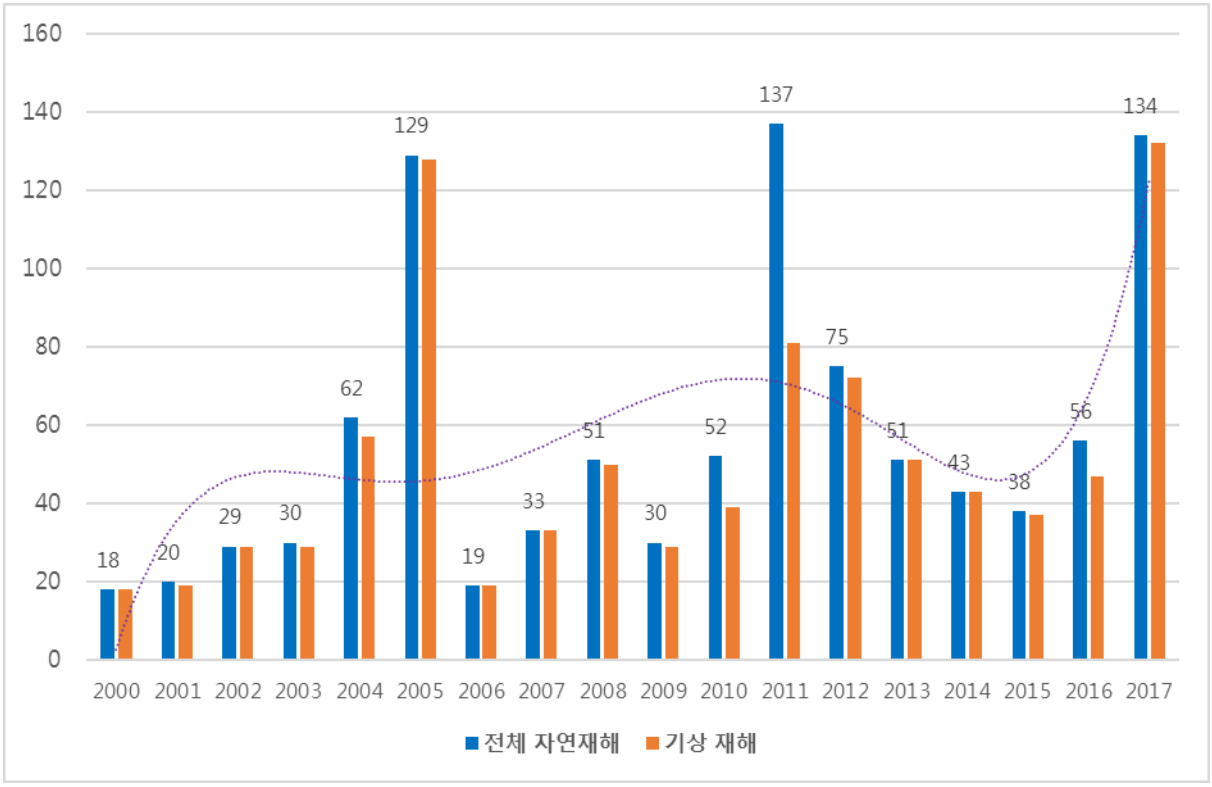
2) 보험손해액[주4] 분석

2017 년에 자연재해로 인한 발생한 보험손해액은 1,340 억 달러로 이는 최근 17 년 동안 2 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분석된다. 이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으로 1,290 억 달러의 이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던 2005 년의 기록을 소폭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는 역대 자연재해로 인해 1,000 억 달러의 보험손해액을 초과한 세 번째 사례이며, 허리케인 등 기상 재해의 보험손해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2005 년과 2011 년의 손해 규모를 상회하는 등 2000 년 이후 최고액을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년 전세계 보험산업은 6,000 억 달러 규모(2017 년 3 분기 말 기준)에 달하는 재보험 담보력과 2005 년과 2011 년으로 축적된 위험관리 능력 등에 기인하여 보험손해액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주4) 민영 보험사의 손해액은 물론, 미국의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및 Risk Management Agency's Crop Insurance Program 등의 공영 보험사의 손해액을 포함하는 지급액 기준

< 전세계 자연재해 보험손해액 추세 (2000-2017) >

(단위 : 10억 달러)



2017년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손해액은 대부분 3분기에 발생한 허리케인 하비, 어마, 마리아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상기 세 개의 허리케인은 약 800억 달러의 보험손해액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7년 발생한 전체 보험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허리케인에 따른 손해에 이어 가장 높은 보험손해액을 기록한 자연재해는 미국 캘리포니아州에서 발생한 산불로 기록되었으며 최소 110억 달러의 보험손해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2017년 발생한 10대 보험손해액 사고 중 9개에 해당하는 사고가 미국에 집중되었으며 이 중 3건이 열대성 사이클론, 4건이 기상재해[주5)]에 해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 2017년 주요 자연재해 보험손해액 >

(단위 : 10억 달러)

발생일	재해 유형	발생 장소	경제손해액	보험손해액
8.25-9.2	허리케인 하비	미 국	약 100	약 30
9.18-22	허리케인 마리아	캐리비안	약 65	약 27
9.4-12	허리케인 어마	미국, 캐리비안	약 55	약 23
10월	산 불	미 국	13	11
5.8-11	기상 재해	미 국	3.4	2.6
12월	산 불	미 국	3.2	2.2
3.26-28	기상 재해	미 국	2.6	2.0

주5) 강풍, 호우, 대설, 뇌우, 이상기후 등의 기상 원인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발생일	재해 유형	발생 장소	경제손해액	보험손해액
3-8월	가 뭄	미 국	2.5	1.9
3.6-10	기상 재해	미 국	2.2	1.6
6.11	기상 재해	미 국	2.0	1.6
기 타			104	31
합 계			353	134

2017년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손해액은 경제손해액과 마찬가지로 3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리타, 유럽 홍수 등으로 인해 1,010억 달러의 보험손해액을 기록한 2005년 3분기에 이어 분기 기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한편 2011년 3분기(태국 홍수 및 일본 대지진 등)이 620억 달러, 2004년 3분기(허리케인 이반, 찰리, 프란시스) 440억 달러, 2011년 2분기(미국 기상 재해 및 가뭄, 뉴질랜드 지진 등) 370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2017년 발생한 열대성 사이클론에 의한 보험손해액은 830억 달러로 2012년 이후 최대 손해액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2017년 집계된 전체 보험손해액의 62%에 해당하는 손해액이다. 뒤를 이어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재해 유형으로 기상 재해 240억 달러, 산불 14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2017년 산불의 경우 단일연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보험손해액을 기록하였고 기상 재해 역시 2000년부터 2016년 동안의 평균 보험손해액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2018 년 재보험특약 갱신 동향[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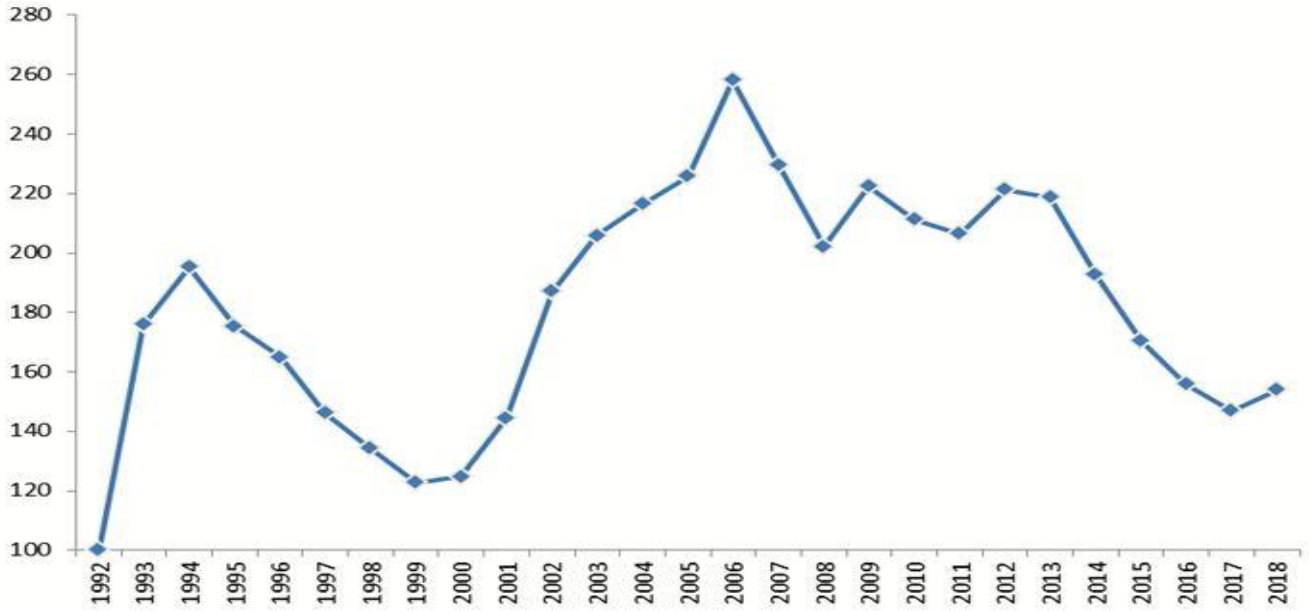
2017년은 2016년에 이어 손해액의 규모 및 자연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전지구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평균기온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한 데에서 기인한다. 또한, 해수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북극해빙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과거보다 강력한 허리케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파 및 폭설 등 기상 재해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였다. 허리케인 등 기상 재해로 인해 주요 (재)보험사들의 막대한 보험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연재해 추이 및 보험가입 규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CAT Model을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으며 언더라이팅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쳤고 이는 2018 특약갱신에 반영되었다.

주6) 2017.6월, Marsh Market Report

2018.1월 갱신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미국 남부 지역과 카리브해 허리케인, 캘리포니아 산불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보험요율 인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무사고 계약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한자릿수 범위 안에서 요율 인상이 이루어졌다.

2017년 자연재해에 따른 전세계 보험손해액이 약 1,340억 달러로 집계되어 2016년 대비 16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1년과 2005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보험 손실의 대부분은 미국 남부 지역과 카리브해 허리케인, 멕시코 지진,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큰 재해가 덮친 미주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이번 1월 갱신에서는 보험요율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으나 상승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계 재물보험 자연재해 요율 지수 >[주7)]



재보험 구매자, 즉 출재사들은 최근의 글로벌 재보험 산업이 기존의 2011년과 2005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2005년 허리케인 Katrina·Rita·Wilma 및 2011년 일본·뉴질랜드 지진과 태국 홍수 등의 대형 자연재해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이후 재보험시장에 대체자본이 꾸준히 유입되고 축적되면서 재보험 담보력과 요율이 안정화되어 대형재해가 발생한 후에도 시장이 극도로 하드화되는 것을 막고 있다. 과거 재보험시장이 전통적 재보험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하드마켓과 소프트마켓을 오가는 언더라이팅 사이클의 발생이 필연적이었다면, 재보험 시장에 대체자본이 꾸준히 유입되고 축적되면서 출재사들은 안정적 인수능력 확보가 가능하고 재보험료 수준을 언더라이팅 사이클에 큰 상관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주7) JLT Re, 1992년을 기준으로 한 Event XOL 요율변동 지수

2017년 연이은 대형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많은 재보험 관계자(재보험자 및 출재사)들은 재보험시장의 혼란을 예상했었으나 2018년 1월 특약갱신을 통해 대형 자연재해의 발생 이후에도 대부분의 출재사들은 시장의 혼란스러운 상황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재보험 담보력을 안정적으로 제공 받았으며, 이러한 재보험 영업환경은 과거와 같이 대형 자연재해 직후 큰 폭의 보험요율 상승을 기대했던 많은 재보험사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상기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재보험가격의 하락추세는 중단되었으며 일시적인 반등으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상승이 보여졌고 금리인상에 따라 재보험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이 축소되고 있어 2018년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규모에 따라 2019년에는 하드마켓으로의 전환이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II. 결 론 (2019년 재보험 운영전략)

2018년 하반기 이후 2017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전세계 재보험시장은 하드마켓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소프트 마켓과 하드마켓이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재보험의 특성상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소프트 마켓이 시기적으로 전환될 시기이며 자본시장 또한 소프트마켓 지속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하드마켓으로 재보험시장이 급격히 전환되었을 때 보험주체별로 어떻게 재보험을 운영할지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원보험사의 재보험 운영전략

자연재해 다발지역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원보험사는 자신이 보유한 위험을 재보험을 통해 분산시킨다. 1차적으로 비례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2차적으로 비비례재보험(동 보고서에는 자연재해 Event XOL)을 통해 보유 리스크량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하드마켓으로 전환되어 자연재해 Event XOL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된다면 재보험구조, 나아가서는 원보험 인수정책까지 재검토 되어야 한다[주8].

Event XOL의 대안은 비례재보험이 될 것이다. 그러나 Event XOL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담은 재보험자도 피할 수 없으므로 비례재보험 가격의 상승 역시 불가피하다. 비례와 비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한다면 소비자로의 비용전가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재보험시장의 가격이 원보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시차가 필요하므로 하드마켓이 어느정도 진행되었을 경우에만 비용전가가 가능하고 그 초기에는 원보험자가 비용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주9].

이러한 상황에서 원보험자는 자연재해 다발지역에서 포트폴리오를 축소할 것인지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포트폴리오 축소는 시장이 하드마켓으로 전환되지 않거나 가까운 미래에 다시 소프트마켓으로 복귀할 경우 마켓쉐어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재보험 비용증가를 원보험사가 흡수하거나 비비례재보험의 대안으로 해당지역에 자본을 추가적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만약 지급여력비율 문제로 자본할당이 어렵다면 기존 비례재보험 구조를 변경하여 재보험 담보력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례재보험의 수수료 체계를 슬라이딩 스케일로 변경하여 수수료 인하로 인한 비용상승을 스프레딩 시키는 것을 사전에 재보험자와 협의하는 것도 하드마켓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주10].

주8) 코리안리재보험(2017), Reinsurance, 비비례특약 실무

주9) 코리안리재보험(2017), Reinsurance, Event XOL 운용

주10) 코리안리재보험(2017), Reinsurance, Event XOL Pricing

2) 재보험사의 재보험 운영전략

재보험사에게 있어 하드마켓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하드마켓으로 인한 재보험 가격상승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동시에 하드마켓으로 시장이 전환된 이유(자연재해 증가 등)에 누적되어 노출되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재보험자라 할지라도 자본이 무한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재보험시장에 담보력을 무한정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에 전략적으로 제한된 담보력을 어떤 재보험 상품에 사용하는지 결정해야 하는데 하드마켓에서는 비비례상품의 가격이 가장 먼저 상승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수익성을 위해서는 비비례 재보험 위주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효과적일 것이다.
비례시장 역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하드마켓이 계속 이어진다면 비례재보험의 수수료를 조정하여 비비례와 적정비율로 담보력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주11].

비비례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CAT Modeling을 정교화 시킬 필요가 있다. 재보험으로 인수한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분석하는 CAT Modeling 을 정교화 시켜야 하며 자본력을 키우기 위해 증자나 대재해채권의 발행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주12]. 끝.

주11) 코리안리재보험(2017), Reinsurance, 재보험 프로그래밍

주12) 코리안리재보험(2017), Reinsurance, ART